

신성장 · 4차산업 분야 창업자 집중 육성

전주시, 중기부 주관 국가공모 '3관왕' 2년간 투자 탄소융합기술원 등과 함께 예비창업자 지원 본격화

전주시가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을 돕는 국가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면서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2019년 실전창업교육 등 국가공모사업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창업자 발굴부터 양성, 성장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는 2년간 국비 84억원을 집중 투자해 신성장산업과 4차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후 3년에서 7년 사이의 창업도약기의 기업의 성과 창출 및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사업 주관기관으로해 오는 2021년까지 국비 69억원 등 총 7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

원은 창업 후 자금 흐름이 악화되는 시기를 일컫는 데스밸리(Death Valley)에 놓인 창업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분야(AI, 5G 등 3개 분야 15개 핵심기술) 기업에는 최대 기업 당 5억원, 일반분야 기업에는 최대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통프로그램으로 △초기창업자 클리닉 △온·오프라인 멘토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에 힘쓰고 특화프로그램으로 △관료개혁을 위한 기업 해외시장 개척 △미디어를 이용한 마케팅 등도 운영한다.

여기에, 민간연계프로그램으로 중국·베트남 시장 진출 소재기업의 컨설팅·마케팅 등 수출관련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기술원은 이달 말까지 전

담조직을完비한 후 창업도약기업 24개를 발굴, 공통·특화프로그램, 자금 직접지원 등 각 기업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사업' 공모에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1년간 국비 5억 6000만원 등 총 6억6000여 만원을 투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은 4차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20명 이상을 발굴해 △기본교육 △시제품 제작 △마케팅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창업자당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끝으로, 최근 '2019년 실전창업교육 사업' 공모에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

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양성할 수 있게 됐다.

시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향후 2년간 국비 4억원 등 총 5억원의 사업비로 연간 300여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시제품 제작, 시장검증 등의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60명의 예비창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대 1000만원의 사업자금이 별도로 지원한다.

김영호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사업간 연계 및 내실 있는 사업지원으로 지역 내 신성장 분야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삼천동 막걸리골목 지역공동체 활성화 교육 실시

전주시가 막걸리골목을 중심으로 삼천동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시는 10일 삼천2동 주민센터에서 막걸리골목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막걸리가게 상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사회경제적·도시재생지원센터 김창환 센터장을 교육강사로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한 공동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란 주제로 교육을 들은 삼천동 주민들은 스스로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함께 추진할 것을 다짐하고 그 첫 번째로 주민들 모두 참여해 삼천동 관내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했다.

/송효철 기자

온두레공동체 현장 컨설팅

전주시가 올해 활동하는 온두레 공동체 현장을 찾아가 성장을 돕기로 했다.

시는 2019년도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올해 공동체 공모 사업에 선정된 60개의 온두레 공동체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공동체로서 첫발을 내딛은 1차년 디딤단계 공동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증빙서류와 보조금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체 사업 방향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한옥마을 절기 축제 계절 맛 보러 가자

21일부터 8월까지

전주한옥마을에서 올해 다양한 절기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매달 전주소리문화관 등 5개 문화시설과 한옥마을 일원에서 '2019 전주한옥마을 절기 축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축제는 5개 절기 일정에 따라 1개 문화시설이 절기에 맞는 주제를 정하고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 전시, 체험, 먹거리 나눔, 길놀이 등 행사를 주관하고 나머지 문화시설은 △관소리(전주소리문화관) △목판인쇄(완관본문화관) △절기주·주안상 시음(전주전통술박물관) △문장나눔(최명희문화관) △부채만들기(전주부채문화관) 등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먼저 4월에는 곡우(穀雨, 4월 20일)를 맞아 오는 21일 전주소리문화관에서 '백곡을 기쁘게 농사비 내리니 한옥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소리내어 함께 어울려 놀

아보자'를 주제로 '풍농기원 전주삼라(三樂) 페스타'가 개최된다. 또, △주민먹거리체험 △전통연희극 △심청가 기획전시 △길놀이 △민속놀이 한마당 등이 준비될 예정이다.

이어 5월 17일에는 입하(立夏, 5월 6일)를 맞아 전주전통술박물관에서 '보리가 익을 무렵의 서늘한 날에 지역주민과 함께 절기주의 맛과 향을 향유하자'를 주제로 '절기주(節氣酒)와 주안상 풍류한마당'이 진행되고, △절기주 등 만들기 주민교육 △절기별(4~8월) 주안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6월에는 하지(夏至, 6월 22일)를 맞아 28일과 29일 이틀간 전주부채문화관에서 '여름의 초입 하지에 바람을 일으켜 시원한 휴식을 안겨주자'를 주제로 '전주부채, 여름아, 짹짹 마!'가 진행되며, △신선화그리기 체험 △선자장 초대전·특

강 △부채 성악공연 △주민체험 △먹거리 나눔 등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7월에는 소서(小暑, 7월 7일)를 맞아 7일 최명희문화관에서 '일손이 비쁜 작은 더위에 전주사람들의 흥과 오감을 자극하자'를 주제로 '더위를 달래는 혼불만민낭독회'가 진행되고, △문학인·소리꾼·연극인·일반인 혼불 낭독 △전시 △필사체험 등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절기축제 마지막 행사는 8월 칠석(七夕, 8월 7일)으로 완관본문화관은 오는 8월 10일 '견우지녀의 만남과 이별을 완관본으로 만나보자'를 주제로 '칠월칠석, 완관본 만나는 날' 행사를 진행한다. 또 △연간독 전시 △관각체험 △목판과 염서 보내기 △문화장터 △사랑가 공연 등 전주의 기록문화유산 완관본을 새롭게 만나는 한마당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동료 굴착기에 '설탕' 부여 망가뜨린 40대 검찰 송치

화강에 동료의 굴착기 엔진룸에 설탕을 부여 망가뜨린 40대가 붙잡혔다.

무주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모(42)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굴착기 기사인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시경 무주군 무주읍 한 주차장에 세워진 동료 B모(51)씨의 굴착기 엔진오일 주입구에 설탕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3500만원의 손해를 봤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B씨와 작업 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화강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화강에 자신의 굴착기에 설탕을 부었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보건소 "일본뇌염 적기 예방접종을"

최근 국내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발견된 가운데, 전주시보건소가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제주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감염병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를 처음 발견할 때 발령되며 현재 제주 지역의 지역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입각박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릴 경우 99%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의 경우 급성뇌염으로 진행되며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중 △위험지역(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일본뇌염 유행국가 여행자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요원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장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2세 이하 아동도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앞서, 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유충의 주요 서식처인 정화조와 복개천 등 주요 민원 발생지역에 유충구제 약품을 살포하고 잔류 분무소독을 실시하는 등 모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힘써왔다.

/송효철 기자



전북대학교병원과 함께하는 JH최고경영자 건강포럼이 지난 9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최고 경영자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전북대병원 JH최고경영자 건강 포럼 본격화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과 함께하는 JH최고경영자 건강포럼이 지난 9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JH(Jeonbuk Health)최고경영자 건강포럼은 전북대병원의 축적된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최고 경영자들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워 건강한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요기관 및 최고 경영자간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와 새로운 지식경영을 통해 글로벌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경영포럼이다.

매주 화요일 3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건강포럼은 전북대병원의 분야별 대표 전문의와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주요 강사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웰빙라이프와 헬스케어,

장년기 건강, 불황기 정신건강 등 CEO들이 꼭 알아야할 건강정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경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호흡기전문질환센터 2층에서 열린 개강식에서는 조남천 병원장을 비롯해 앞으로 포럼을 이끌어갈 주요 강사진 및 도내 최고 경영자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남천 병원장은 "건강이 가장 큰 경쟁력인 건강경영 시대를 맞아 최고 경영자들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건강한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건강포럼을 마련하게 됐다."며, "우리 전북대병원의 축적된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의 CEO들이 건강해지고 지역발전 선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 총장선거' 개입 전·현직 교수 "잘못한 사실 있다면 모든 책임 질 것"

전북대학교 총장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교수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북대학교 총장선거 적폐 대책 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위원회는 이날 "우리가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그 행위를 변명할 생각도 없고,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우리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행동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8일 교육공무원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현직인 A교수와

전직 교수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교수는 "김모 경감이 먼저 만남을 요청해 만난 것이다. 계획하거나 특정인과 공모해 경찰이 오게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그가 물어보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답한 것이며, 떠도는 소문을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총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15일 전주 시내 한 카페에서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 경감을 만나 당시 현직이던 이남호 총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비리 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김 경감을 만난 직후 교수 회장과 다른 지인 교수 4명에게 "경찰이 이 총장 관련 탐문 활동을 시작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A교수의 발언은 이 총장을 겨냥한 경찰의 비리 내사설로 불거져 대학계시판과 교수들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이후 총장선거 토론회에서 이란 의혹이 쟁점화됐으며, 최종 결선에서 이 총장은 낙선했다.

한편, A교수를 만난 김 경감은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불인건했다.

/강석훈 기자

동양산 휴친 60대 검거

상점 앞에 내 놓은 동양산을 휴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66)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6시 48분경 익산 시내 한 상가 앞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동양산 화분 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장어양식에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의혹 업주 불구속 입건

유독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장어양식에 사용한 의혹을 받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양식장 업주 A모(63)씨와 종업원 B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51들이 공업용 포르말린 8통을 양식장 수조 청소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접착제나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하는 유독물질로 양식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에 해당수산물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양식장의 장어 출하와 유통을 중단시켰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수사팀이 구매처로 확대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수사팀이 좁혀오자 사용하지 않은 포르말린 2통을 양식장 인근 하수구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강석훈 기자